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칭찬 폭격기] 이다

나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일이 쉽진 않죠. 오랜 고민 끝에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칭찬 폭격기'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기로 오래전에 굳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 폭격기'입니다. 칭찬이 고픈 날 저를 찾아주세요. 진정성 없는 칭찬이 아닌 당신이 모르고 있던 진정한 장점을 찾아 칭찬을 날리겠습니다.
- 서평택지사 고객지원부 류순아 과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i am

KEPCO

20
24

10
october

vol.616

리 틈 감 있 게

R H Y T H M

오 늘 을 연 주 하 며

춤 추 듯 살 아 간 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일상이 시계추 같습니다.
때때로 막히는 퇴근길. 우리의 인생도 막힐 때가 있죠.

출퇴근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계절은 흐르고, 풍경도 달라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일상에 숨겨진 작은 기적들을 발견해 봅시다.

here i am, i am KEPCO

i am

KEPCO



통권 616호 2024년 10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10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MESSAGE CEO 취임 1주년 특별 담화문	22 SITE 스마트하게 진화된 배전망 통합운영 플랫폼 ADMS! - 배전계획처 ADMS부	34 CURATION 산 시리즈 ② 아름다운 단풍이 돋보이는 산	44 KEEPER 처음을 여는 사람들 - 서평택지사 고객지원부 류순아 과장
8 ESSENTIAL KEPCO 나는 직장인이다	26 GREENSIGHT 다시 한 번, 향기 입은 꽃이 되다 - 대구본부 사우들의 화훼 왁스타블렛 만들기	36 TALK 내 인생에 퍼지는 감성 선율 - 부산울산본부 사우들의 지브리 영화 음악 콘서트 관람기	46 人STARGRAM
14 LIGHT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우리의 해결 과제	30 VIEW 내게 깊게 뿌리 내린 당신은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40 K-CREATOR 빛 바래지 않는 여행 브이로그 제작기 - 여주시사 고객지원팀 배정윤 사원	48 NEWS
18 FOCUS 유연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 제주본부 조직개편	32 WIDE '지식'으로 주저앉은 카시오, 'NEW 지식'으로 일어나다	42 MAGAZINE P 신선한 가을빛에 물들다 - 정읍&정읍지사	50 ON KEPCO
20 ZOOM IN 한전갤러리 제3회 기획 전시 「Art For Green, 유한의 에너지 해답을 찾다」 : 소중한 것들의 유한함에 대하여			

CEO 취임 1주년 특별 담화문



친애하는 한전 가족 여러분,

국내외 전력산업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취임 1년을 맞은 소회와 함께 회사의 변화와 혁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동해안-수도권 HVDC 전 구간 착공과 UAE 원전 4호기 상업운전 개시라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전력노조를 포함한 전 직원이 동참하여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충실히 추진한 결과, 대규모 적자상황 속에서도 정부 경영평가 B등급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3년여간 쌓인 누적 적자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위상도 계속 추락해 왔습니다. 과거 90년대에 국내 시가총액 1위, 2016년에 포브스 선정 1위 전력 유틸리티였던 우리 한전이 현재는 시가총액은 30위권 밖으로, 포브스 순위는 40위권 밖으로 크게 밀려나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전 가족으로서 저는 극한의 기후상황과 중요한 국가행사 때마다 안정적 설비유지와

무결점 전력확보를 위해 밤낮·휴일을 가리지 않고 연인원 8만여 명의 한전 직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과연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수행 자세와 대응방식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 순간 정말로 최선을 다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다 함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눈앞의 급한 위기 대응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냉철한 반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력 극대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확립에 전사적 역량을 모아야겠습니다.

국제 공급망 질서재편과 에너지안보 강화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흔들림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경영혁신과 기업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재무정상화 달성을 위해 고강도 자구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전기요금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가 기반 요금체계의 확립과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 지속가능한 전력사업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원적 기업체질 개선을 위해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혁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회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제공받도록 성과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 고도화와 고객서비스 혁신을 통한 본원사업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반도체, AI와 같은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더불어 전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건설은 물론이고,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국회, 정부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하남시의 동서울변환소 증설 불허 등과 같은 최근 돌발변수까지 고려해, 주민 소통과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품질 유지를 위한 정전시간 단축, 송배전손실률 최소화 등 본연 업무에도 총력을 기울여, 국가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가계와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기업으로서 전 임직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는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내재화하는 한편, 고객서비스 다양화, 요금선택권 확대, 에너지복지 실현

등 국민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미래 전력산업 新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분야 유니콘기업의 수가 2022년 기준 80개이고, 2040년까지의 누적투자 전망이 12경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유니콘기업의 수는 118개로 늘어났고 2050년까지의 누적투자 전망치는 27경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에너지대전환의 시대에 에너지산업이 타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산업 그 자체가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더욱더 많은 기회를 선점하려면, 단순한 전력공급자가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생태계 혁신의 선구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송·변전, 배전 등 전력산업 핵심 분야의 우수 기술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류배전, ADMS, IDPP 등 에너지신기술 개발과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그리고 해외 진출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UAE에서 전 세계에 입증한 원전 적기건설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수출 시장을 적극 확대하고, 새로운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원전을 통해 한전과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을, 우리 한전이 주도해 나갑시다.

넷째, 이사회 중심의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정착시키고, 전력그룹 거버넌스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전체 GDP 중 공공영역의 비중이 15%나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은 2% 이하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이, 국가경제와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요국들은 자율책임경영 확립을 통해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전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리더로서, 전력공급의 효율과 편익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유지하며, 전력산업과 국가 핵심 산업의 진흥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한다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를 넘어 확고부동한 글로벌 1위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 차원에서는 전력산업의 동반성장과 전력생태계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전력그룹사의 거버넌스를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체제로 개선하여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 전체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전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첫째도 주인의식, 둘째도 주인의식, 셋째도 주인의식”임을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공기업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는 주인이 분명 있습니다. 한전에 자신의 신명(身命)을 바쳐 일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한평생 한전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갈 바로 우리 임직원들입니다.

시키는 일만,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맞닥뜨린 수많은 문제들을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회사의 손실을 단 1원이라도 줄이고, 회사의 이익은 단 1원이라도 늘리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 퇴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찾아 결국 해결해 내고야 마는 사람, 그가 바로 한전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자세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북본부의 직원이 345kV 신제전, 신충주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설비(FACTS)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학회 논문발표부터 관계 기관 설득까지 직접 완수해 동해안지역 발전제약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연 400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부 사업분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기준과 프로세스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내부진단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 모두의 일하는 방식을 재점검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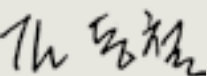
사랑하는 한전 가족 여러분, 2차 대전 직후 영국 수상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져어 있는 낡은 의식과 문화, 일하는 방식과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냅시다.

사장이로서 저는 이 험난한 도전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회사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취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 광기’란 말이 있다. 여기서 ‘광기’란 무언가에 눈빛이 은은하게 돌아 있다는 의미의 유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폭염이 오나 정시 출근을 위해 오늘도 지옥철에 몸을 싣는 K-직장인들. 어떠한 일이 닥쳐도 출근하는 이들을 향해 ‘좀비 사태가 터져도 출근할 게 분명하다’고 할 정도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1990년대 여름, 폭우로 도시가 성인 남성의 가슴까지 물에 잠겼지만 K-직장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헤치며 출근길에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K-직장인들이 출근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2022년 벼룩시장의 조사를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직장인이 출근 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월요병’과 ‘출근하기싫어병’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광기’ 하나로 K-직장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K-Office Worker

9 to 6.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시간이다. 하루 중 3분의 1을 회사에서 보내는 만큼 조직문화는 직장인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 실제로 직장인의 이직·퇴사의 주요 원인은 ‘조직문화’다. 2022년 동아일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59.6%가 조직문화 때문에 이직·퇴사를 고려하거나 실행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조직문화가 바뀌고 있다.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9시 출근에서 유연 출근제로, 사무실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변화하고 있는 것. 여기에 시대상에 따라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그리고 본업만 잘하면 되던 원잡(One Job)에서 N잡러로 직장인들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조직문화의 변화가 가져온 현상

MZ세대에게는 주5일 근무가 익숙하겠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주6일 근무가 기본이었다. 쉬는 날은 오로지 일요일 단 하루뿐. 대신 토요일은 오전 근무가 주를 이어 ‘반공일(半空日)’이라고 불렸다. 달력에 토요일이 휴일을 의미하는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격적으로 주5일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때는 2000년이다. 이후 7년에 걸쳐 주5일제 도입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다.

그렇다면 주5일제 도입으로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여가 시간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그 덕분에 직장인 사이에서 금요일 밤에 출발해 일요일에 돌아오는 ‘도깨비 여행(틈새 여행)’이 뜨기 시작했고, 금요일에 밤새도록 노는 ‘볼금’ 문화가 생겼다.

이후 오랫동안 조직문화는 변화의 기점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를 떠오르게 했는데, 조직문화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부터 유연근무제 등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변화한 것.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3곳 중 1곳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결과는 ‘효율성’ 중시로 나타났다. 잔디, 플로우, 노션 등 업무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최근의 추세만 봐도 알 수 있다.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문화가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졌고, 이를 구성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업무 툴이 떠오르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Wo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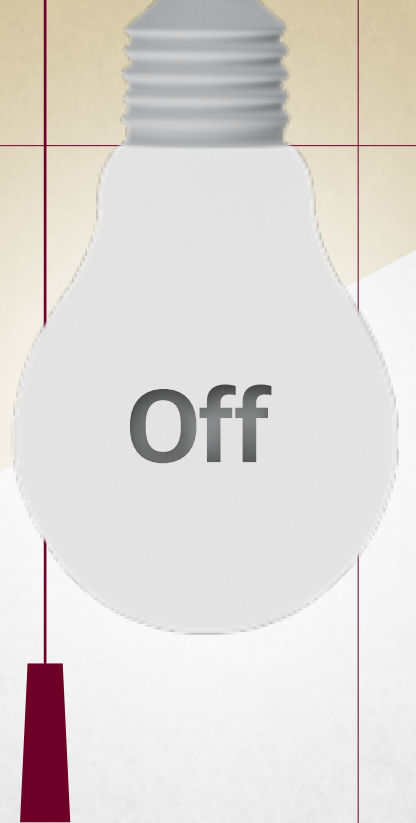
시대상에 따라 변화된 직장인 문화

주5일제, 유연근무제 등으로 조직문화만 바뀐 게 아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개인화의 흐름이 강해지면서 직장인 문화가 다양해졌다. 두드러진 특징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직장인들에게 힘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게 됐다.

그와 동시에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연봉을 올리는 프로이직러가 선행의 대상이 되면서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이 떠올랐다. 평생 나를 먹여 살릴 1~2개의 직업만 있다면 직장이 어디든 상관없어졌다. 이는 개인보다 조직이 중요시되었던 과거에서 개인이 조직보다 중요시 여기게 된 현상에 기인한다. 더 이상 한 조직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한 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본업 생활을 하던 직장인들이 퇴근 후의 개인 시간에 부수적인 일을 해 부가 수익을 얻는 N잡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3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 중 무려 89.0%가 N잡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50대 이상이 43.1%로 가장 높았다. 개인 시간을 활용해 부가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N잡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도 보여준다. 하나의 일자리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출근에서 퇴근까지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K-직장인들. 시대가 바뀔에 따라 조직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K-직장인들의 삶 또한 달라졌다. 앞으로 K-직장인들이 맞이할 삶의 변혁은 무엇일까?



상황에 따른 연차별 직장인 반응은?

기본 업무가 있는데
상사가 다른
업무 지시를 내렸다!

1년차

3년차

6년차

넹?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네? 아...
네, 보고했습니다

제가 뭐요?

망했다...

망했다.크르...

1년차

3년차

아뵐싸!
업무 중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응응 ~ 망했다

6년차

신입일 때, 어떤 일이든 잘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K-직장인들. 하지만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면서 연차가 쌓일수록 업무 노하우도 노하우지만 노련미(?)도 얻었다.
신입이라 할 수 있는 1년 차와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3년 차, 그리고 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6년 차 직장인의 웃픈 상황별 반응을 카툰으로 만나보자.

퇴근을 앞두고
야근 무한리필에
걸렸다!

내일로 이루면
내 일이 되겠지?

1년차 되면
퇴근할 수 있겠지?

1년차

3년차

6년차

오늘은 치킨이달!
왜냐면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1년차

3년차

6년차

아싸~월급 들어왔다.
이걸로 뭐 하고
뭐 하고 뭐 해야지~

월급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와, 신난다.
월급날이다.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우리의 해결 과제

2023년 4월 전기사업법 제25조, 제27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22~'36년)을 살펴보면 반도체산업, AI 확산 등으로 인한 최대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설비 용량 증가로 인한 송변전 전력망 설비건설 물량이 대폭으로 증가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전력난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기사가 하루가 멀게 보도되는 상황이다. 늘어난 발전량을 전력망(송전선로, 변전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의 해결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0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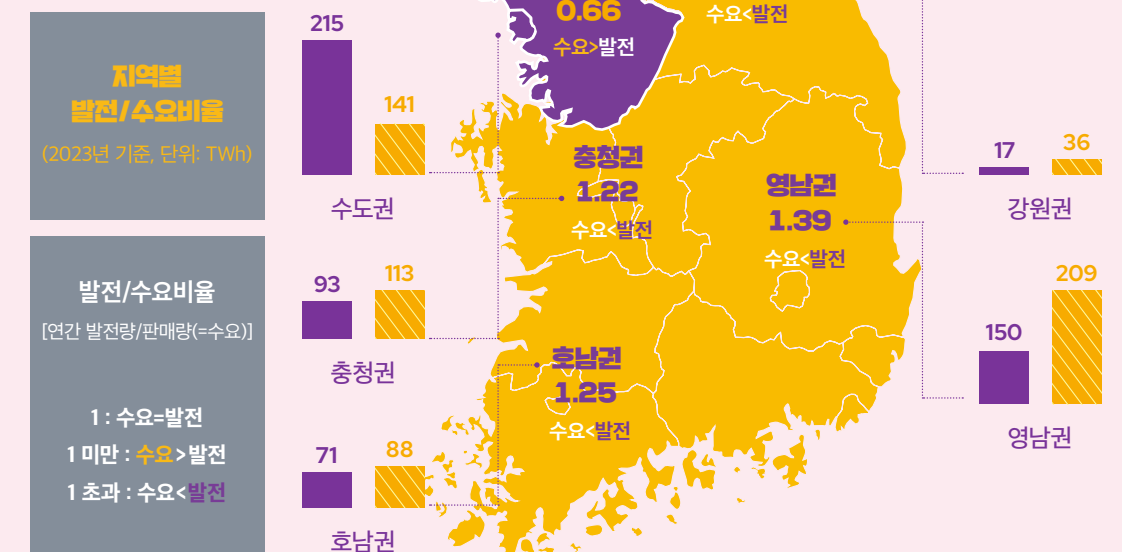
최근 들어 사용이 증가하는 GPT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전력 수요가 왜 급증하는지 알 수 있다. 서비스별 전력 소모량과 관련하여 일반 구글 검색에는 0.3Wh, Chat GPT 사용에는 2.9Wh, AI 기능이 통합된 구글 검색에는 6.9~8.9Wh가 소모된다. 이는 향후 개발되는 AI 기반 구글 검색이 현재의 구글 검색보다 약 20배 이상의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준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이러한 전력수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듯, 최대전력은 2023년 대비 2038년 32% 증가(98.3GW→129.3GW)를 예상하며, Net Zero 2050 달성을 위한 태양광·풍력설비 용량 증가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용량은 2023년 대비 2038년 344% 증가(26GW→115.5GW)를 예상하고 있다.

02

수요와 발전의 지역편중 심화

수요와 발전의 지역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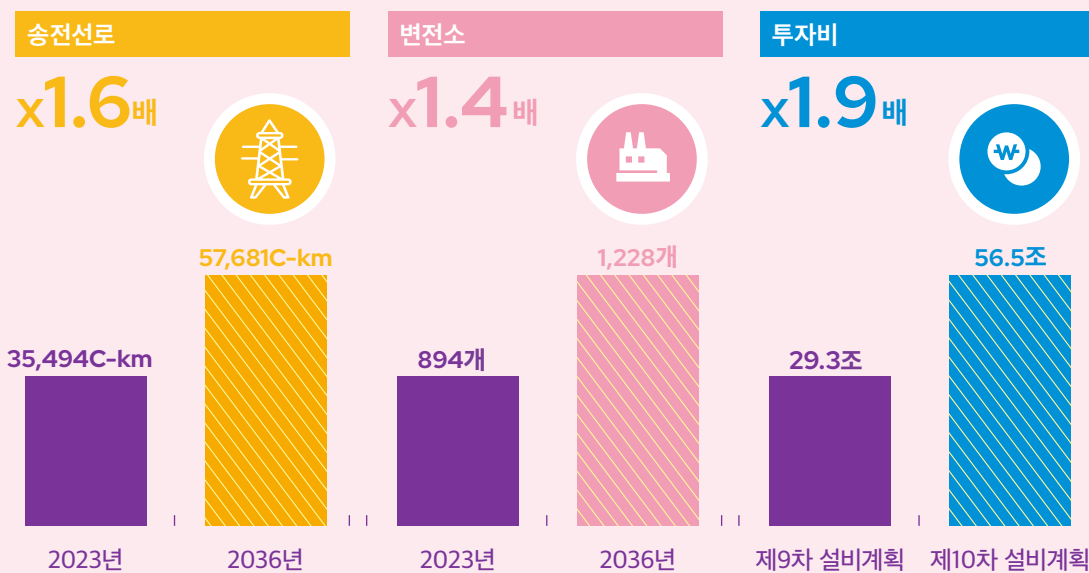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광역별 에너지 자급률을 확인해 보면, 대다수 발전소가 에너지 자급률 1을 초과하는 강원, 충청, 영남, 호남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최대 40%를 필요로 하는 수도권은 에너지 자급률이 0.66으로 제일 낮다.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지와 그 전력을 소비하는 수요지 간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

전력망 신설에 대한 수요 급격히 증가

수요와 발전의 지역편중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22~’36년)을 살펴보면, 향후 15년간 송전선로는 1.6배(35,494C-km→57,681C-km), 변전소는 1.4배(894개→1,228개)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며, 15년간 투자비는 56.5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38조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2036년까지 국가기간망 구축계획을 살펴보면 500kV HVDC 선로 및 345kV AC 선로는 총 10,330C-km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제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전체 물량(22,491C-km)의 45%에 해당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45kV 총 14개의 송전선로가 신설되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선로길이는 1,153km(직선거리)로 서울-부산 직선거리의 약 3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망 건설 여건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주민 목소리를 우선시하는 ‘지자체 비협조’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전력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요 지연 사유로는 ①입지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업 추진 원천 반대 등의 사유로 표본 2년 대비 평균 4~5년이 소요되고, ②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는 주민 열람·공고 및 설명회 거부 등으로 표본 3년 대비 평균 3~4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③송전선로 시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공사 방해 및 지자체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으로 표본 4년 대비 평균 6년 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345kV 가공선로 표본공정 9년 대비 평균 13년(+4년)이 소요되고 있다.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결과(2023년 5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법령정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전 송변전건설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령정비·보상혁신·업무혁신을 추진했다. 우선 법령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①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운영 기간 상한 설정(최대 2년) 및 지자체 주민대표 추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하여 입지선정 위원회 운영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②협의간주제 도입을 통하여 지자체 실시계획 협의 기간(40일) 초과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보상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①조기협의 장려금 신설을 통하여 토지주와 3개월 이내 협의 시 감정평가의 최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은 345kV 이상의 무탄소 전원,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첨단전략산업단지 공급용 핵심 전력망에 특별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①범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여 전 주기를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②떨린 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예타면제 등을 통한 인허가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③전원개발촉진법보다 의제사항을 대폭 확대(18개→34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④ 지자체·주민 대상 보상 확대(토지주 선하지 매수 청구권, 지자체 에너지 바우처, 송주법 지원 보상 확대)를 통하여 송변전 설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현재(’24.9월 기준) 특별법은 7명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총력 동원을 통해 무쟁점 법안으로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망 지중화 법제화를 통한 원칙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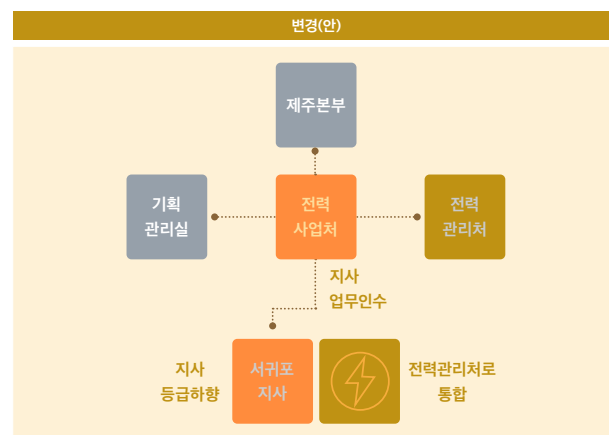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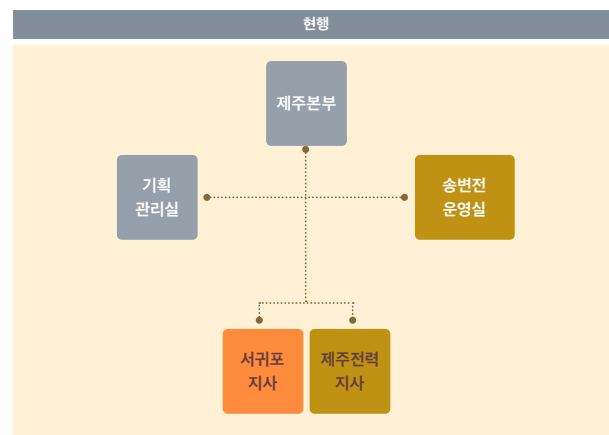
두 번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력망 지중화 원칙 확립』이다. 전력망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지중화를 확대하고자 한다. 비용 효율적 지중화 확대를 위해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담은 지중화 법제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법 법률 개정, 전자파 이해 증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기적소 전력공급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좌우

이르면 내년 착공이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도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예상 전력 사용량은 10GW 이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각각 500조 원과 122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 대항전이 된 첨단산업 경쟁 속에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다. 전력망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한전인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유연하고 전문성 있는 전사 최초 변화, 제주본부 조직개편

에너지대전환의 시대, 전력사업 환경은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가 회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소 역시 기존의 필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분산전원 관리, 전력설비 적기건설, 신사업 추진 등 새로운 영역을 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한창이다. 제주본부는 본사 주관의 조직효율화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전사 최초로 직제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본부의 조직개편 과정과 의미를 살펴본다.



서귀포지사 등급을 하향하고 제주전력지사를 폐지해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를 신설했다.



환경 변화 대응력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의 변화, 조직개편

제주본부는 전국 지역본부 중 유일하게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 직제 없이 기획관리실과 송변전운영실로 운영돼 왔다. 고객, 요금, 배전업무 담당 부서들을 총괄하는 전력사업처가 없는 상태로, 고객지원부 등의 여러 부서들이 본부 직할 소속으로 운영되었다. 기획관리실,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3처(실) 직제를 타 지역본부와 동일하게 갖추어 조직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요구는 계속 존재해 왔지만, 제주본부는 타 지역에 비해 고객호수와 판매량 면에서 규모가 작은 데다 인력을 본부 밖에서 충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조직 형태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심화되며 제주-육지 간의 세 번째 전력 연계선인 #3 HVDC의 상업운전을 앞두는 등 제주본부만의 현안 과제들에 직면하면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점차 강해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제주본부는 2023년 10월 조직개편 TF를 발족해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노사 협의, 본사 관련 처실의 검토 등을 거쳐 직제 신설·통합, 사업소 축소·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실행했다.



전력사업처 신설과 서귀포지사 축소

제주에서는 급증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인버터 성능 개선, 비상대응반 운영, 유연성 설비 구축 등 분산전원 관련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분산 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배전계통운영자(DSO)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제주본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분산전원 정책 대응을 전담하는 '배전망사업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제주도 전 지역의 분산전원 연계를 위한 용량검토와 분산전원 투자계획, 계획공사 등을 전담 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정책 관련 대관업무와 신사업 업무를 전담할 수요혁신팀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할 배전계통팀도 각각 에너지효율부와 배전운영부에 신설했다.

이와 같이 본부 현안 대응을 위한 부서, 팀 신설과 함께 '전력사업처'를 신설하여 제주본부 직할 소속이었던 고객지원부, 요금관리

부 등 5개 부서와 신설된 배전망사업부를 전력사업처로 통합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지사는 2급에서 3급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 조정을 시행했다. 신설된 배전망사업부의 분산전원 관련 업무뿐 아니라 전기요금 고압채권 관리, 전력피해변상금 회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PPA, 배전선로 이설, 고객만족도 관리 등 서귀포지사의 업무 일부를 본부의 전력사업처로 통합하여, 관할 구역에 따라 각각 시행하던 업무를 본부에서 통합 시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력관리처 신설과 전력지사 폐지

제주도의 발전설비는 전국의 약 1.6%에 불과하지만, 제주 전력계통은 육지와는 달리 독립된 전력계통으로 인한 취약성을 가진다. 제주본부는 전력관리처 신설을 통해 제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제주본부 소속의 유일한 전력지사인 제주전력지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송변전운영실과 통합해 전력관리처를 신설했다. 전력관리처에서 계통·설비 감시와 운영을 총괄 시행해 지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관리처 내 송변전부는 송전운영부와 변전운영부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완도-제주 간 연계를 앞두고 2024년 9월 시운전 중인 #3 HVDC 운영을 위해 관련 조직 정비도 시행했다. HVDC부 내에서 각각 #1 HVDC와 #2 HVDC를 담당하던 변환1팀과 변환2팀 체제를 변환운영팀과 변환정비팀으로 재편했으며, 변환운영팀에서 #3 HVDC의 변환설비인 동제주변환소를 전담 운영하여 신설 HVDC의 연계와 상업운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화와 소통, 노사화합과 결단으로 만들어낸 조직개편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본부의 숙원이던 전력관리처와 전력사업처 신설을 이루어냈지만, 사업소 일부 조직은 폐지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 2년여에 걸친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직 폐지와 축소,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전사적으로 전례가 없던 상황에서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시기도 있었으며, 세부사항 결정과 실행과정상의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인 작년 10월부터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직개편 TF를 운영하여 부서별, 조직별로 의견수렴을 세밀하게 거쳤으며, 노조를 대상으로 한 3회의 사전 공청회와 2회의 사업소 전 직원 대상 공청회를 시행함으로써 정원조정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갔다. 이관업무와 인원 세부조정에 관한 소규모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주본부 노조에서는 자체 TF를 별도 운영해 조직개편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부 전 직원에 대한 설명회를 시행하여 개편안에 대한 최종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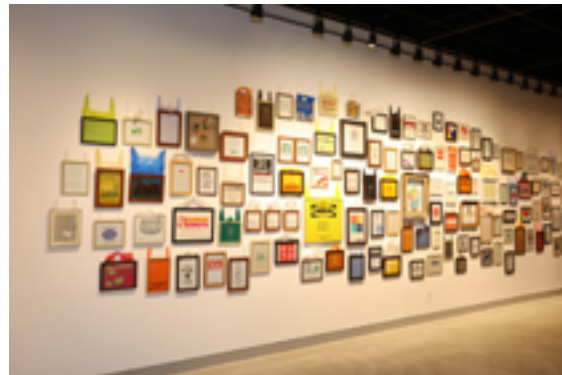
그 밖에 사옥 공사와 이사, 사무실 이전, OA설비 공사를 공정 에 맞춰 진행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한 영배시스템, ERP시스템 정비와 예산·권한 이관 등의 사전 작업도 주기적인 TF 실무회의를 거쳐 준비한 결과, 10월 1일 조직개편이 순조롭게 시행되었다.

제주본부의 조직개편은 회사의 위기와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주인의식의 결과물이다. 혁신의 의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소통 노력,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한 노조의 과감한 결단이 합해져 만들어낸 전사 최초의 조직개편이 앞으로 전사적인 조직효율화의 지침이 되길 바란다.



상쾌한 공기, 깨끗한 물은
항상 곁에 있기에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만 실은
유한하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힘이다.
제3회 「Art For Green 展」은
이처럼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전시다.

한전갤러리 제3회 기획 전시 「Art For Green, 유한의 에너지 해답을 찾다」 : 소중한 것들의 유한함에 대하여



김상현_빈 봉지 빈 액자/2024



강현아_복원력/2024



이진영 작가가 파도 이모지라는 작품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최현실 작가의 전시 전경

전시회에서 에너지의 소중함 느끼다

한전갤러리에서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Art For Green 展」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전시회는 <유한의 에너지, 해답을 찾다>라는 부제로 일상에서 누리는 소중한 것들의 ‘유한성’에 초점을 맞춰 그 가치를 표현하고, 나아가 ‘미니멀리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덜어내는 삶의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지난해 개최된 제2회 「Art For Green 展」에서는 <공간에서 공감으로>라는 부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면, 올해는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기후 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해답을 관람객과 함께 모색한다.

9월 25일 개막식으로 문을 연 전시는 11월 20일까지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5인의 단체전으로 1전시실에서는 강현아, 김상현, 이진영 작가가 ‘유한성’을 주제로, 2전시실에서는 최현실, 신이나 두 명의 작가가 ‘미니멀리즘’을 주제로 전시를 구성해 다양한 장르의 5인 5색 작품들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이모티콘을 그려 SNS로 공유하는 ‘에절티콘 만들기’, 버려진 비닐봉지로 ‘나만의 작품’ 전시하기, ‘에너지 코인 뽑기’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에너지는 유한하다’라는 인식의 변화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이번 전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한전의 궁극적 바람이다.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고,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한전 갤러리에서 예술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이나_미묘한 시선 시리즈

관람 안내

전시명: 제3회 「Art For Green 展」
기간: 9.25~11.20
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장소: 한전갤러리
1~2전시실(한전아트센터 1층)
문의: 02-3456-5091/5096



스마트하게 진화된 배전망 통합운영 플랫폼 ADMS!

배전계획처 ADMS부

한전은 복잡해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배전망 통합운영 플랫폼인 ADMS를 자체 개발했다. 그리고 4년간의 확대사업을 통해 올해 9월 15개 지역본부에 구축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배전망을 ADMS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ADMS 전사 확대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ADMS가 구축된 인천본부 배전센터를 찾았다.



Smart Platform

ADMS의 계통 관리, 효율도 속도도 끌어 올려!

변전소를 거친 전기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배전계통을 관리하는 배전자동화시스템은 기존에도 DAS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이는 배전선로의 전압, 전류 등의 상태를 감시하고 고장 인지, 정전 복구하는 역할을 지난 20여 년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원의 증가로 배전망이 복잡해지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용력이 중요해지면서 에너지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자, 한전은 이에 맞춰 분산형 전원과 EV(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배전망 종합 플랫폼, ADMS를 개발했다.

ADMS는 전력 데이터 융합을 통한 정확한 계통해석과 감시가 가능하다. 특히 분산전원에 의한 계통의 전압변화가 감지되면 ADMS는 계통변경 및 분산전원출력 제어를 통해 안정화된 계통운영으로 전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ADMS 실시간 계통해석 기능을 활용해 개폐기의 구간별, 선로별 부하와 발전 이력 데이터를 관리하고 구간 부하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부하와 발전량을 추정, 예측하여 재생에너지 수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고장이 발생하면 정전구간을 계통도와 지리정보시스템 GIS

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고장구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전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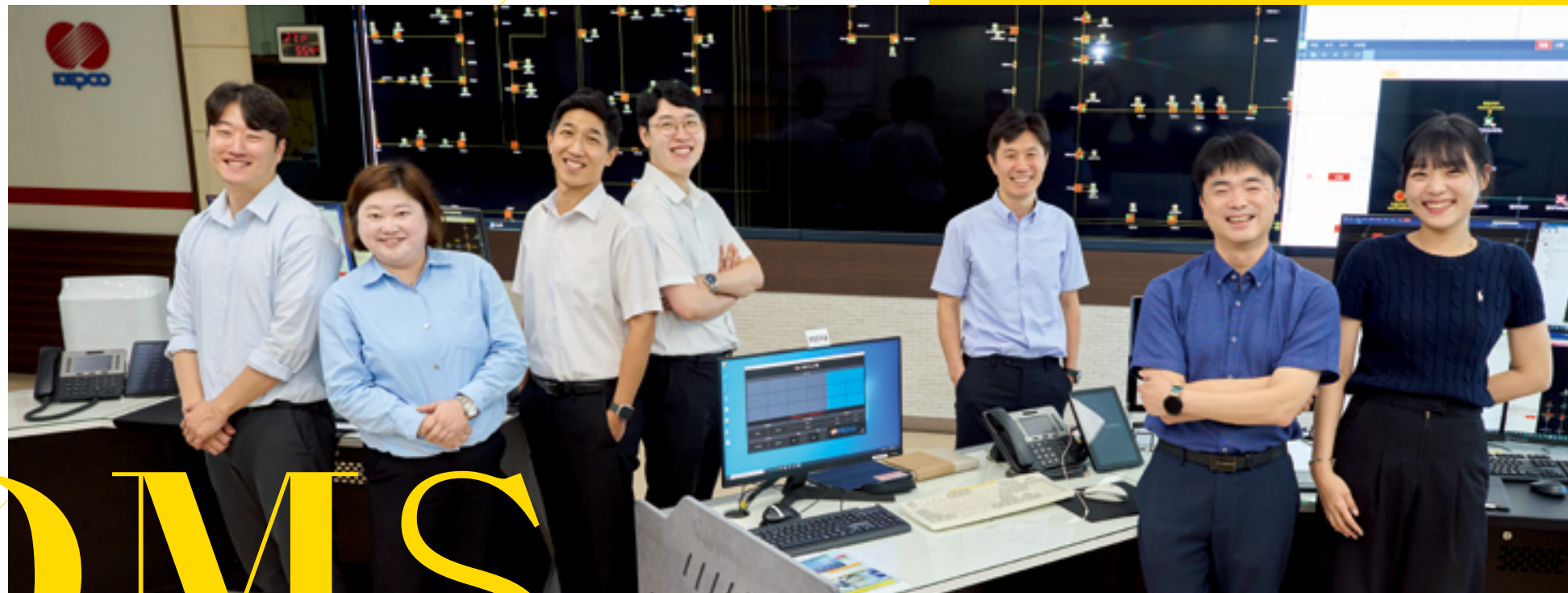
그뿐 아니라 ADMS는 SCADA나 AMI, 영배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개방형 플랫폼 구조를 갖추고 있어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 융합하여 보다 발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ADMS는 시스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통신장애 발생 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고 예비 서버로 절체되는 시간이 발생하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ADMS는 평상시에는 데이터를 분담해 처리하다가 장애 발생 시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술을 활용하여 나머지 서버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 제어 공백이 없는 무중단 계통운영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지사 단위로 설치되어 있던 주장치를 본부 단위로 통합해 서버 관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본사 후비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배전계통을 운전할 수 있다. 이처럼 ADMS를 활용해 배전망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렸고, 통합서버 운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 51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ADMS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착수했으며 2022년 전사 확대를 시작해 올해 9월 전 본부 ADMS 전환을 완료했다.



올해 9월 전 본부 ADMS 전환을 완료한 배전계획처 ADMS부.
사진 왼쪽부터 김태영 대리, 조유진·변경환·전상현·최호준 차장, 김성환 부장, 양혜리 대리.



미래를 향해 최적화된 솔루션, ADMS

에너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전은 기존 배전망을 단순히 관리하는 개념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배전망 연계 확대와 안정적 배전망 운영 역할을 해야 하는 배전망 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로서 전력시장 변화 방향에 맞추어 양방향 계통운영에 최적화된 배전망 관리를 해야 하며, 신뢰도 높은 배전계통 정보를 활용하여 분산형 전원을 감시·제어하고, 재생에너지가 배전망에 연계되어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한전은 ADMS라는 최적의 솔루션을 전 본부에 장착하고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다.

ADMS

다시 한번, 향기 입은 꽃이 되다

대구본부 사우들의 화훼 왁스타블렛 만들기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한 입학식과 졸업식, 일생일대의 화려한 결혼식, 사랑하는 연인과의 기념일, 둘도 없는 가족이 태어난 생일 등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하나 있다. 바로 꽃다발이다. 그리고 이쯤에서 질문 하나. 쓸모가 다한 꽃다발은 어떻게 될까? 이를 재활용하는 이는 없을 테니 당연히 버려지는 게 정해진 수순이다. 특수 공법으로 건조한 꽃을 입사이클해 일상으로 들어온 이들이 있다. 대구본부 전력사업처 구지연 대리, 조유영 대리, 서대구지사 김지호 사원과 박예슬 사원이다.



숨겨진 환경오염의 원인, 생화

소소한 일상의 이벤트를 주는 생화. 자연에서 얻었기에 어떠한 환경 오염 없이 자연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해다. 생화를 운송하는 과정과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혹은 수출하는 꽃이라면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긴 배송거리 때문에 운송되는 꽃 중 45%가 시들어 폐기되기도 하는데, 화훼폐기물은 분리배출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소각 후 매립되고 있다. 이때 화훼폐기물의 미생물로 인해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화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흔히 살충제를 뿌리는데, 그로 인해 화훼폐기물을 강이나 호수에 버리면 분해 과정에서 살충제가 퍼져 나와 수중 생태계를 위협한다. 누가 생화를 강이나 호수에 버리느냐고 의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도가 있다. 행사에 꽃을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한 인도는 사용한 꽃을 캔지스강에 버리는 문화가 있다. 그 결과 매년 800만 톤의 꽃이 강에 버려지며, 이는 인도의 전체 강 오염원에서 16%를 차지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생화 등 화훼폐기물의 가장 큰 단점은 '일회성'에 있다. 오늘 하루를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딱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생화는 재활용한다는 개념도 없어 숨겨진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특수 공법으로 특수하게 말린 꽃

꽃처럼 화사한 대구본부 4인방이 한국업사이클센터를 찾았다. 오늘의 업사이클 체험은 말린 생화로 왁스타블렛을 만드는 것이다. 왁스타블렛이란 캔들 왁스로 만드는 단단한 방향제로, 습기가 강해 화장실에 사용하기 좋으며 최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드라이플라워 왁스타블렛의 특이한 점은 생화를 보통의 드라이플라워처럼 자연 건조시키지 않고 특수한 공법으로 1년 전에 건조시켰다는 점이다. 드라이 플라워는 건조할수록 색이 바래질 뿐더러 꽃이나 잎이 안으로 말리거나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수 공법은 그런 단점 없이 생화의 모양이나 색을 그대로 보존한 채 건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수 공법으로 건조된 다양한 꽃과 잎이 펼쳐진 테이블에 앉자 시향지가 주어졌다. 왁스타블렛이 머금을 향기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순위이기 때문이다. 의외로 향기에 관한 취향이 확고한 네 사람은 빠르게 5가지 향기 중 제 맘에 쏙 드는 것을 골랐다.

곧 드라이플라워로 왁스타블렛을 꾸미는 본격적인 과정에 돌입한 네 사람. 향은 쉽게 골랐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꽤 걸렸다. 어떤 모양의 어떤 색을 가진 꽃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떤 모양의 입으로 여백을 채우는지에 따라 왁스타블렛의 인상이 확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벤트가 일상과 조화된 순간

“나는 미적 감각이 진짜 없는데. 큰일이네.” 박예슬 사원이 걱정을 한가득 담아 말하자 여기저기서 “나도”라며 공감을 표했다. 도무지 꽃과 잎을 어떻게 배치해야 예쁠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예슬 사원이 강사에게 SOS를 쳤다. 강사의 팁은 간단했다. ‘메인 꽃’을 먼저 고를 것. 이후 메인을 돋보여줄 서브 아이템을 골라가며 배치한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단다.

이에 너 나 할 것 없이 메인이 될 꽃을 선택했다. 구지연 대리는 화사한 노란 꽃을, 조유영 대리는 수줍음을 머금은 분홍 꽃을, 박예슬 사원은 순도 높은 하얀 꽃을, 김지호 사원은 활달해 보이는 진분홍 꽃을 골랐다. 서브 아이템도 그에 어울리는 꽃과 잎을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다 보니 벌써 40분이 훌쩍 지났다. 긴 고민 끝에 배열을 모두 마친 이들이 뜨겁게 달궈진 왁스에 향수 액상을 넣은 컵을 받아 잘 섞이도록 휘저으며 답소를 나눴다.

남은 과정은 왁스를 틀에 붓고 그 위에 배열했던 대로 꽃과 잎 등을 조심스레 올려놓는 것뿐. 가외부터 하얗게 굳어가는 왁스를 매초 체크하며 핀셋으로 꽃과 잎을 하나씩 올렸다. 일상의 이벤트를 더욱 빛내주는 생화가 드라이플라워 왁스타블렛으로 태어나는 순간, 모두의 눈빛이 만개한 꽃처럼 더없이 반짝였다. 간혹 찾아오는 이벤트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평화로운 일상이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일상과 조화를 이룬 오늘의 시간이 은은한 향기로 마음속에 깊이 남았기를 바란다.

TIP

간단! 간편!
드라이플라워 방향제 만들기

준비물 : 드라이플라워, 지퍼백 또는 비닐봉지, 에센셜 오일, 소금, 리넨 주머니

- 1 바짝 말린 드라이플라워에서 꽃잎만 떼어 줍니다.
- 2 꽃잎을 지퍼백 또는 비닐봉지에 바스라지지 않게 담아줍니다.
- 3 마음에 드는 에센셜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꽃잎에 뿌려서 섞어줍니다.
- 4 반나절 정도 에센셜 오일 향이 스며들기를 기다립니다.
- 5 리넨 주머니에 말린 꽃잎을 넣으면 방향제 완성!



mini interview



대구본부 전력사업자 구지연 대리

업사이클을 처음 체험해보았는데, 꽃을 재활용해서 왁스타블렛으로 만든다는 관점이 신선했습니다. 게다가 1년 전에 특수 공법으로 건조시킨 꽃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꽃 선물이 많아진 만큼 이런 방식으로 업사이클한다면 환경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대구지사 박예슬 사원

드라이플라워와 달리 색의 채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거의 생화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특수 건조 기법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왁스타블렛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장소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돼요.

서대구지사 김지호 사원

버려졌을 꽃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왁스타블렛으로 만든다는 의의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속가능한 환경에 저 역시 동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화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줄 알았는데, 생화도 환경오염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놀라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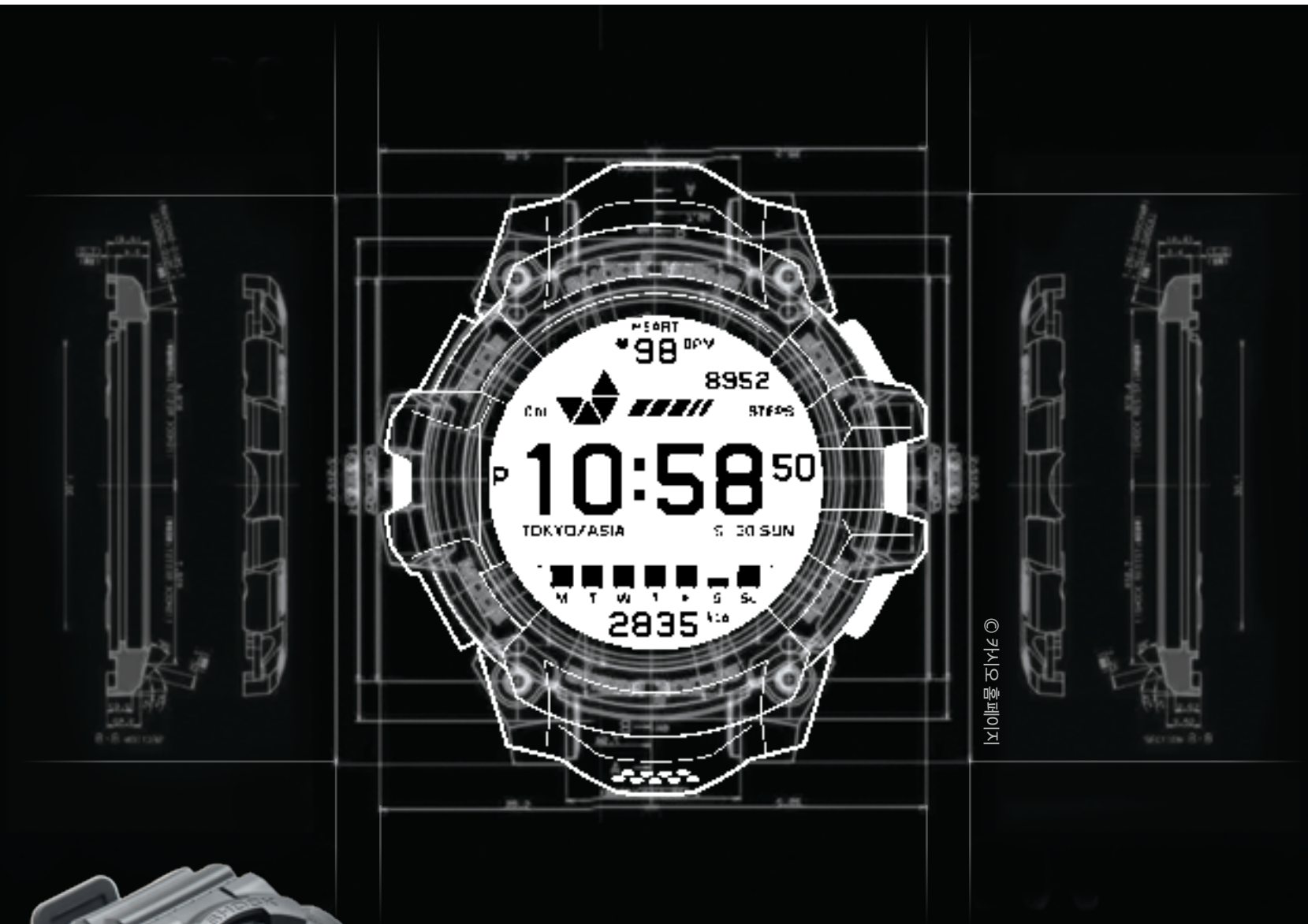
대구본부 전력사업자 조유영 대리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공방 체험이 아닌 재활용을 통한 업사이클을 체험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꽃들로 왁스타블렛을 만들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또한, 매일 민원업무 하다가 이렇게 리프레쉬하니 환기가 되고 좋았습니다.

내게 깊게 뿌리내린 당신은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당신 또한 쓰러지지 않기에
당신의 무게가 힘겨울 때도 있지만,
당신의 온기에 기대어 오늘을 이겨낼 용기를 얻습니다.





© 카시오 홈페이지

‘지삭’으로 주저앉은 카시오, ‘NEW 지삭’으로 일어난다

카시오의 ‘지삭(G-Shock)’은 1990년대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전자시계다. 3040세대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손목에 지삭을 채워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행의 변화, 스마트기기의 시대가 도래하며 카시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지삭의 인기 하락은 카시오의 긴 슬럼프로 이어졌고, 결국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다. 이후 카시오는 디지털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로 눈을 돌렸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다. 그러던 카시오가 최근 다시 부활했다. 그것도 ‘지삭’으로 말이다.



기본에 충실한 ‘지삭’, 카시오를 전 세계에 알리다

지삭은 카시오의 연 구원으로 근무하던 이베 키쿠오에 의해 개발됐다. 그가 지삭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출근하던 그는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시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를 본 이베는 충격에 강한 시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베가 구상한 지삭의 제원은 배터리 수명 10년, 10기압 방수 기능, 10m 높이에서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기 등 세 가지 조건이었다고 한다.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베는 1981년에 연구에 돌입했다. 2년간의 긴 연구를 마친 그는 1983년에 첫 지삭을 출시했다. 이베의 노력을 담은 첫 번째 지삭인 ‘DW-5000C’ 모델은 출시 초기에는 낮은 인지도 탓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1984년 미국에서 방송된 한 광고가 지삭을 혁신으로 이끈 것이다. 당시 광고에서는 지삭을 아이스하키의 ‘팩’ 대신 하키채로 때려 슛팅하는 연출을 했는데, 시계가 부서지지 않자 이를 두고 과장 광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지삭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검증했고, 트럭이 밟고 지나갔음에도 멀쩡하게 동작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입소문을 탔다. 이후 지삭은 전 세계 시계 마니아들의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승승장구 카시오, 시대의 변화에 위기를 맞다

단 한 번의 광고를 통해 전 세계에 지삭을 알린 카시오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1985년 진흙 방지 구조를 가진 DW-5500C 모델을 출시하면서 진흙에서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했으며, 이 시계는 ‘머드맨(Mudman)’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어 1989년에는 시곗바늘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AW-500’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1993년에는 ISO 6425 인증을 받은 다이버 시계로 세상을 다시금 놀라게 했다. 1994년 개봉한 영화 스피드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다양한 액션 장면에서 지삭을 착용해 화제가 됐다. 이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삭의 열풍이 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 인

기는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지삭=카시오’라는 아이덴티티가 정립될 정도로 지삭은 카시오 그 자체였다. 우상향 길만 걸던 지삭. 그러나 그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스마트폰 등기 등의 출현으로 하락세를 그려 나간 것. 다행인 점은 2000년대 초반 당시 카시오가 지삭을 비롯한 시계 사업 외에도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 시장에서 강자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도가 뒤바뀌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카시오는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고, 인기를 끌던 지삭 역시 ‘구시대의 전유물’ 취급받으며 매출이 반토막 났다.



위기의 카시오, 다시 지삭으로

위기의 늪에 빠진 카시오는 10년이 넘는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자기기 시장에서 카시오의 명성은 이미 옛말이었고, 다른 시장에는 이미 독보적인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고민을 이어온 카시오는 큰 결단을 내렸다. 과거 카시오를 영광으로 이끈 지삭에 다시 주목한 것이다. ‘지삭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베는 튼튼하던 지삭을 더욱 튼튼하고 내구성 있게 제작했고, 여기에 ‘럭셔리’라는 이미지까지 더했다. 또한, 2010년대 중반 당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웃도어 열풍’이 불며 지삭의 인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과거 강조하던 내구성을 더욱 부각, 중화권에서 ‘고릴라가 밟아도 멀쩡한 시계’로 광고하며 3040세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어린 시절 타고 다니던 100달러짜리 지삭의 추억을 간직한 이들이 소비력을 갖춘 3040세대들로 성장했고, 그 결과 3,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지삭을 구매하며 향수에 응답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지삭은 당시 한정판으로 내놓은 고가의 모델도 품귀 현상을 빚었다. 나아가 2016년 총 판매량 850만 개를 기록하며 1997년의 기록한 최고 판매량을 19년 만에 새로 쓰는 데도 성공했다. 지삭은 2017년 누적 출하량 1억 개를 기록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카시오의 위기는 지삭의 인기 하락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카시오의 부활 역시 지삭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 카시오가 지삭을 통해 어떤 스토리를 써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山 시리즈 ②

가을, 아름다운 단풍이 돋보이는 산

알록달록 산이 단풍으로 옷 입는 시기가 왔다. 이에 단풍 구경하러 등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등산이 난이도 높은 산을 등산하면 단풍 구경은 커녕 숨 몰아쉬기에만 바쁘다. 모두가 단풍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등산 난이도에 따라 단풍 구경하기 좋은 산을 소개한다.

1.

왕초보 추천 산행지!



단풍나무를 비롯한 활엽수가 많은 남한 산성. 등산 초보자에게 부담 없는 단풍 산행지다. 남한산성은 남한산과 청량산 사이에 걸쳐 있는 산성으로,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에 걸쳐 있다. 남한산이 더 높지만 산성의 지휘소인 수어장대(守禦將臺)가 있는 청량산이 주봉이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기 시작했으며, 조선 인조 때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1,000년을 초월한 역사의 공간을 걸어서 답사할 수 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매력 포인트 ★★★★★☆

산성을 따라 걸으며 다채로운 분위기의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시원한 경치도 만점, 서울은 물론 하남과 성남 시내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산성을 따라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2.

등산인 추천 산행지!



인산인해의 내장산 단풍 구경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선운산을 권한다. 고창과 정읍은 딱 붙어 있는 지역이다. 이 일대는 빗갈 고운 애기단풍나무가 많고, 강수량이 적당하며, 일교차가 커서 단풍이 유독 화려하다. 계곡을 가운데 끼고 양쪽으로 능선이 이어져 찬란한 단풍잎을 볼 수 있다. 능선의 산 높이는 300~400m대로 낮지만 능선 끝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10km를 넘을 만큼 땀을 쏟 빼는 개운한 당일 산행도 가능하다.

매력 포인트 ★★★★★★

내장산 급의 단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섬세한 기암과 오밀조밀한 풍경까지 함해해 결코 내장산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단풍 명산. 자신에게 맞는 원점회귀 가능한 다양한 코스를 잡을 수 있다.

3.

등산 베테랑 추천 산행지



그해 첫눈, 첫 번째 같은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설악산 서북능선을 추천한다. 첫 단풍이 내려앉는 산이 설악산이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높은 능선인 서북능선에 먼저 가을이 스며든다. 서북능선은 설악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능선이며, 15km가 넘는 긴 능선의 우두머리가 귀뚜라미봉이다. 1,400~1,600m대에 이르는 능선에서부터 단풍이 물들어 산 아래로 내려온다. 다만 한번 능선에 진입하면 탈출이 어려워 최소 20km 이상 걸어야 하기에 베테랑에게 알맞다.

매력 포인트 ★★★★★☆

'바람이 너무 차갑고 매서워 귀뚜라미가 떨어질 것 같다' 하여 유래하는 이름처럼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는 설악산 최고 레벨 산행지다. 서북능선과 공룡능선을 묶어 1박 2일에 주파한다면, 아름다움으로 꽉 채운 최고의 이틀이라 할 수 있다.

2024 단풍 절정 시기

중부

속리산 10월 30일
계룡산 10월 29일

호남/제주

내장산 11월 05일
한라산 10월 28일

강원

설악산 10월 20일
오대산 10월 17일

남부

가야산 10월 27일
지리산 10월 23일



가장 단풍이 멋있게 드는 산은 매년 다르고, 매일 다르다. 단풍나무와 활엽수가 많아야 하고, 그 해의 강수량과 일조량에 따라 단풍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 단풍나무가 많은 내장산 일대가 최고의 단풍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지, 매년 최고의 단풍이라 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중주산행을 즐긴다면, 능선에서 5부 능선까지 단풍이 물들 때 찾는 것이 좋다. 산행보다는 단풍을 즐기고 싶다면 산 입구 계곡까지 단풍이 내려왔을 때 찾는 것이 좋다. 인터넷 SNS를 확인하면 단풍이 산의 어디까지 내려왔고, 어느 산이 절정인지 알 수 있다.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계곡을 기점으로 단풍나무가 많은 산이 최고의 가을 명산이다.

단풍이 가장 멋있게 드는 산
tip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삶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의 'Talk' 시간. 부산울산본부와 함께 동심을 되찾아주는 지브리의 영화 음악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 인생에 퍼지는 감성 선율

지브리 영화 음악 콘서트



PANEL

김태유 부장 안전재난부

등산과 클래식 음악 감상, 그리고 공원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는 김태유 부장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의 OST가 듣고 싶은 마음이 커서 'Talk' 코너에 참여하게 됐다. OST 한 곡 한 곡에서 엄청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스토리를 오감으로 느끼면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전상현 부장 경영지원부

캠핑과 등산을 좋아하는 전상현 부장은 들꽃을 보러 산으로 들로 나들이 가는 것도 좋아하는 감성 파다.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내와의 멋진 데이트를 위해 'Talk'에 참여하게 됐다. 덕분에 애사심도 커지고,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박순우 대리 계통운영부

계통보호팀에서 근무 중인 박순우 대리는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고장을 신속히 계통에서 분리하고, 고장이 파급되지 않도록 보호시스템을 검토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만큼 이번 콘서트 참여가 뜻깊었다고.

조용래 대리 안전품질팀

최근 산책과 육아에 폭 빠진 조용래 대리. 관내 공사현장 안전점검과 안전경영활동 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는 그는 'Talk' 코너 참여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새로운 자극을 받은 계기가 되었다.

김태유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아기자기한 인상이 있다 보니 OST 연주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한 곡 한 곡에 많은 이들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음악적 스토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의 어울림에 첼로가 간간이 자신만의 소리로 화음을 넣어서 듣기 너무 좋았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켜줄 테니까.**

- 벼랑 위의 포뇨

전상현

“평소 일상에서 접했던 애니메이션의 OST를 현장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무척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팬인데요. 옆자리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유명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를 연주자와 소통하면서 듣다 보니 곡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애정도 생기면서 뜻깊은 공연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
운명을 기다리느냐 운명에 맞서느냐는 택할 수 있지.**

-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

박순우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OST인데요. 특히 OST를 작곡한 히사이시 조를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Summer', '인생의 회전목마' 등을 들으며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힘들고 지친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 제대로 된 힐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레 문화생활과 멀어져 있었더라고요. 이번 영화 음악 콘서트 덕분에 출퇴근을 반복하는 무료한 삶에 새로운 자극을 얻었고, 삶이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키키, 그렇게 걸모습에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 마녀 배달부 키키

“
조용래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집에서 RP 테이블로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은 색다른 체험이더라고요. 더 풍부한 사운드로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이나 RP 테이블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 특유의 느낌도 아주 좋았고요. 회사생활과 육아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 무겁거든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
전상현 애니메이션이 현실을 벗어나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애니메이션과 같은 허구적 상상을 하며 나만의 일탈을 하기도 하고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를 들으면서 나도 힘들 땐 환상의 세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연주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만난 인연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을 뿐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박순우 어떤 음악은 들으면 그 음악과 관련된 추억이 생각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ummer’를 들을 때 학창 시절의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학원 및 자습으로 치열하게 살던 일상 중 일찍 하교를 한 날, 오후 4~5시경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쯤 아무도 없는 집에 도착했을 때 느낀 고요함. 주변의 소음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들려오고 따스한 햇살이 집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며 따스한 색을 내뿜는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웃어봐,
그러면 무서운 게 사라진단다. -이웃집 토도로

“
김태유 콘서트에서 <벼랑 위의 포뇨>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OST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연주에 웅찔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율로 편안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나이 들어 삭막해져 갈수록 음악과 미술을 감상하면서 내 삶의 비늘을 윤기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감수성에 딱 맞는 콘서트여서 더욱 그런 생각을 확고히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하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조용래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저와 아내가 자주 보고 들던 영화와 음악들을 현장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듣다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느새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듣다 보니 15개월 아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조금 더 자라서 둘이서 보던 영화를 세 식구가 함께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이번 영화 음악 콘서트 다녀오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쳐 있고 저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1시간짜리 음악 콘서트에도 큰 행복을 느껴서 제 주변의 작은 행복들도 찾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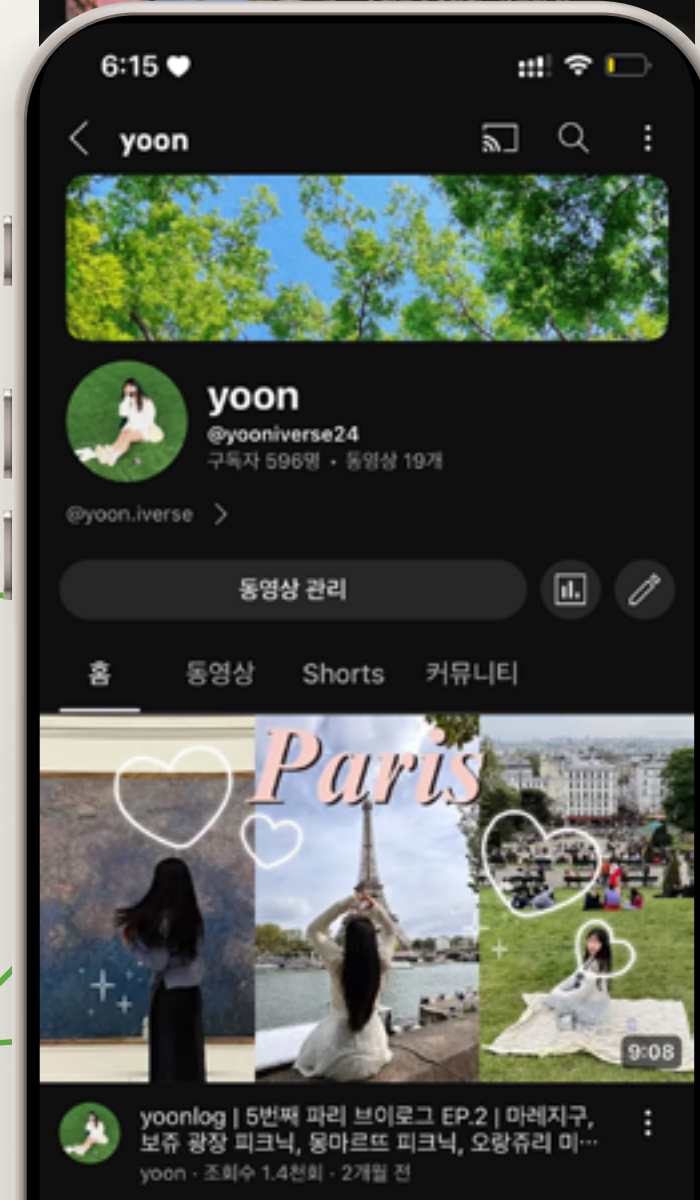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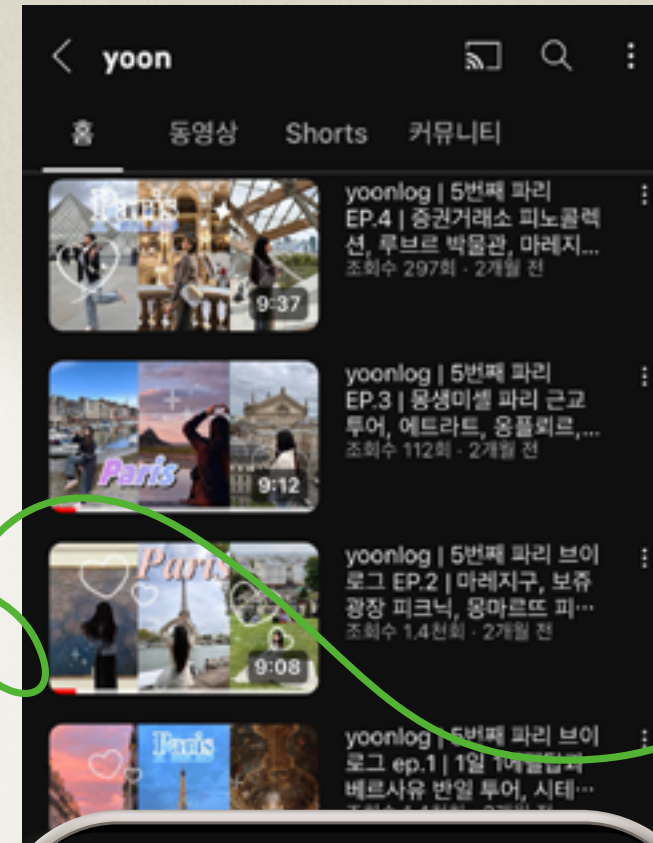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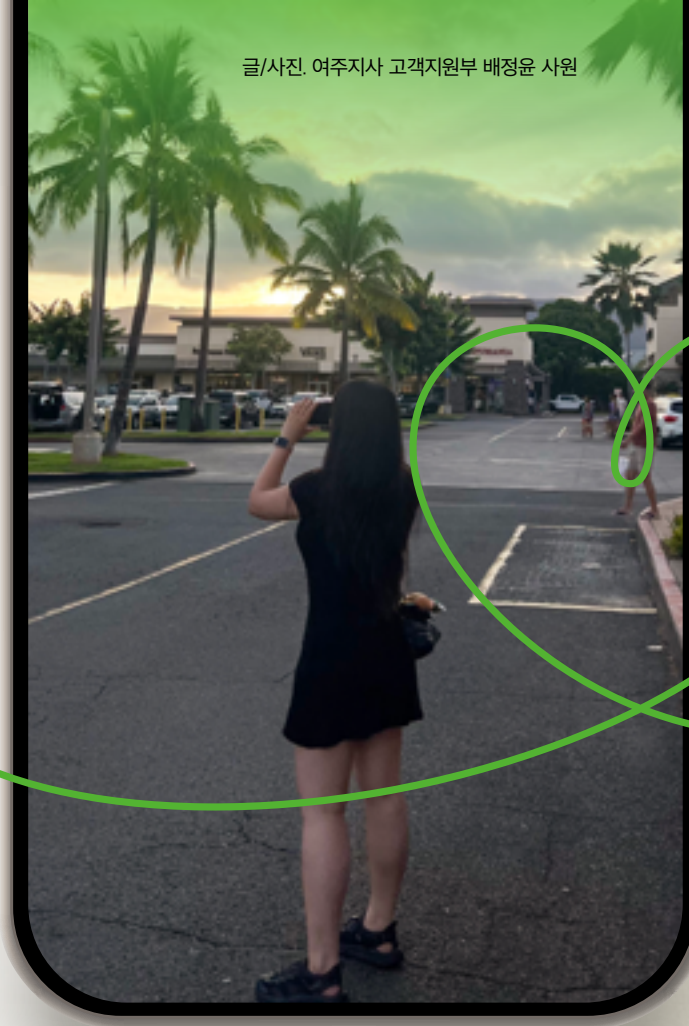
난 계속 도망쳐 왔어. 하지만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어.
바로 너야. -하울의 움직이는 성

코로나 시국이 끝난 뒤 요즘 제 행복은 여행입니다.
가리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함을 쌓고 있습니다.

빛 바래지 않는
추억을 편집하다

여행
브이로그
제작기!!

글/사진. 여주시사 고객지원부 배정운 사원



왜 여행을 가는가

저에게 여행은 앞으로를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인 것들이 나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게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쌓여 사고방식의 폭과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못해도 겁내지 않고 스노클링에 도전하기, 카페나 식당에 가서 점원과 스몰톡 해보기 등 우리나라에선 잘하지 않는 행동을 하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상과 다른 환경인 것 자체만으로도 흔히 말하는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터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행복하다는 감정이 가득해집니다. 한국에서

도 볼 수 있는 풍경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 괜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왜 브이로그를 만드는가

MBTI에서 J 성향이 거의 100% 나오는 저는 원래부터 일기 쓰기, 플래너 작성하기 등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2016년 즈음 엄마, 이모와 함께 삿포로에 가서 처음으로 여행 내내 영상을 찍어 5분짜리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다들 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생동감 넘치는 면에서 사진보다 더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되어 그때부터 여행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느라 여행을 제대로 즐기 못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내가 본 모든 것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찍지 않고, 조금씩 촬영한 것을

편집으로 살려 그 순간을 추억하기 좋은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집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만,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보다 “아, 이때 그랬지” 하며 여행에서 느낀 즐거움, 행복함을 되돌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찍고 편집하는 스스로도 즐겁지만, 이걸 보는 사람도 즐겁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배가 됩니다. 또, 유튜브에 올리면 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도 많아서 뿌듯함도 얻습니다. 물론 제 영상은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특히 힘들 때 다시 보면서 힘을 내기 위해!

기억에 남는 여행지

단연코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간 파리입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와 10일 정도 파리에 있으면서 미술관 투어를 한 적이 있

습니다. 평소에도 엄마와 저는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취미라 이때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작품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작은 동네 미술관에서도 피카소, 모네 등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볼 수 있던 것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네의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저에게 지베르니-오랑주리 코스로 하루를 채웠던 것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미술관을 언제든 갈 수 있는 파리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은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부모님과 함께 파리에 가서 다시 보고 싶었던 곳도, 가보지 못했던 곳도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좋은 곳!

나만의 여행팁

여행지에 가면 꼭 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등 리스트를 세우고 구글맵에 목록을 만들어 지도에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구글맵 리뷰를 보고 식당을 찾아갔을 때 90%는 성공적이어서 구글맵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 브이로그, 네이버 블로그, 갔다 온 지인의 조언을 많이 참고하고 교통카드, 바우처 등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것은 미리 구매해 경비를 줄이곤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 평소에는 1분 1초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지키려 하지만, 여행 다닐 때는 그날 해야 할 일, 먹을 것 정도만 정해두고 유동적으로 다니고자 합니다. 여유롭게 즐기면서 스트레스와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추석 맛이 가족여행으로 하와이 왔는데,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며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다음 여행까지!

화사한 가을빛에 물들다 정읍 & 정읍지사

일명 백양꽃으로도
불리는 내장상사화가 화사하게 폈다.

내장산 단풍터널길. 단풍이 아직
당도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아름다리
나무터널이 서늘한 운치로 압도한다.

그곳엔 서늘한 바람이 통한다.
아름드리나무들이 든든한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과 풀이
고즈넉하게 서걱이는 길.
내장산 단풍터널길을 지날 땐
숨을 크게 쉬어 보자. 속세의
시름들을 내쫓고 바람과
나무와 꽃들이 주는 위로를
한껏 들이마실 수 있다.

절경의 고장, 정읍

내장산 일주문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단풍터널길은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될 만큼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2.7km에 이르는 이 길은 무장에 탐방로로 조성돼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다. 초입에서부터 절경으로 압도하는 정읍의 내장산은 이름처럼 곳곳에 보석 같은 풍경들을 내장했다. 특히 조선 8경으로 꼽히는 단풍의 절경이 유명하다. 단풍과 어우러진 천년고찰 내장사의 풍경도 운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정읍의 유생들이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이곳 내장산 용굴로 옮겨 보존해 냈다는 역사적인 의미도 빼놓을 수 없다. 아직 단풍이 당지 않은 초가을 무렵 내장산에 들어서니 나무의 푸른 행렬 아래 주황색 상사화 무리가 꽃불을 켜 듯 화사하다. 상사화는 8~9월에 주황색 꽃을 피운다. 반면에 2~3월에 돋은 잎은 6월에 저버려 잎과 꽃이 만날 수 없기에 서로

정읍지사 배전운영실
사우들의 출동 모습.



를 그리워한다고 상사화(相思花)라는 이름이 붙었다. 상사화 중에서도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되는 이 꽃은 내장상사화라 하며, 백양꽃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피는 특산식물이다. 단풍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단풍철이 오기 전, 이른 가을산에서 쉼을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최우수사업소, 전북본부의 DNA를 새기다!

정읍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을 피웠고, 일제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펼쳤던 현장이다. 이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읍지사는 1961년 이리 영업소 정읍출장소에서 시작하여 전북지사 경주지점에서 정읍지점으로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의 전북본부 정읍지사로 자리매김했다. 정읍지사 48명의 직원들은 가족처럼 화기에애하고 활기찬 팀워크로 정읍지사의 일상을 일군다. 이러한 에너지들이 모여서일까. 2023년 내부경영평가에서 전북 본부가 최우수사업소로 선정됐다. 이러한 쾌거를 발판 삼아 이들은 남은 한 해 도 알찬 도약의 결실로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동학혁명의
후예답게
패기와 열정 가득한
정읍지사 사우들.



전북본부가
2023 내부경영평가에서
최우수사업소로
선정됐다.



처음을 여는 사람들

서평택지사 고객지원부 류순아 과장



“저를 표지모델로
선정하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축하드려요.”



전기사용신청을 위해, 전기사용변경신청을
위해 많은 고객이 한전을 찾는다. 이들이
지사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 바로 창구를 지키는
직원들이다. 밝은 얼굴로 고객을 응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사람.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닌
창구를 20년째 지키는 류순아 과장과
10월호 표지 촬영을 함께했다.

언제든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행운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표지모델 제안을 받고 처음 든 생각이라고 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고. 수려한 지난 호 모델들을 보고 잠깐 자신감을 잃을 뻔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 같은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

“저를 표지모델로 선정하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축하드려요.”

서로에게 행운 같은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전을 접하는 최초의 문을 여는 사람들

류순아 과장은 창구에서 영업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고객 접점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은 힘이 든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 어떤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이 놀랍기도 하다고. 하지만 악성 민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받을 때도 많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고객의 한마디가 100가지의 악성 민원을 덮어버리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한다. 행복과 자부심이 충만해지는 시간들이다.

긴 시간 동안 창구 근무를 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서 나온다. 아들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냐고 물으면 항상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라고 답한다는 류순아 과장. 사랑하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일했다고 한다. 어느덧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은 나이가 되었지만, 당연하게도 후배들에게 업무를 떠넘기지 않는다. 직장인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내는 건 기본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와 동료 모두를 위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처음 시작은 이렇듯 중요하고 또 어렵다.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잘 풀릴 수도, 악성 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첫 단추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창구를 지키는 직원들에게 조용한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INSTAGRAM#

이 코너는 KEP-CNA와 KEP-CPA-EPA업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구제됩니다. 사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전주지사



명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성한 명절 음식! 우리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을 지원했다. “명절을 혼자 보내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따뜻한 명절 음식을 먹게 되어 감사하다”는 어르신들의 인사가 마음 깊이 남았다.

#전북본부 #남전주지사 #꽃밭이정노인복지관 #추석
#명절_음식 #풍성한_한가위 #따뜻한_마음

구미지사



명절엔 시장에 가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다. 우리 지사는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이사정산 방법, 한전ON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야겠다.

#구미지사 #명절맞이 #전통시장 #산산시장 #새마을
중앙시장 #홍보활동 #이사정산 #한전ON

사천지사



우리 지사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석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계란, 빵, 햄살처럼 꼭 필요한 식료품을 모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방문하는 곳마다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었다. 모두가 행복한 나눔, 앞으로도 앞장서서 실천해야겠다.

#사천지사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풍성한_한가위
#따뜻한_추억 #행복한_나눔 #뿌듯한_마음

남서울본부



우리 본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 현충원 참배 후 묘역 주변을 정비했으며, 설비 점검과 선로 순시도 함께 진행했다. 안정적인 공급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실천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서울본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묘역_정비
#설비점검 #나라사랑 #실천 #저마다의_방법

충북본부



풍요롭기에 더 외로울 수 있는 명절. 우리 지사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행복복지센터를 통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를 활용해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어 선물하였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건넬 것이다.

#충북본부 #전통명절음식_지원 #장보고_요리하기
#러브펀드 #송편_전_불고기_오이소박이

전북본부



변전원 All-Together Day! 우리 본부는 분기마다 변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전분야 주요 동향, 고장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설비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변전원들의 업무 지식이 쌓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친해질 수 있는 뜻깊은 날이다.

#전북본부 #매분기_모임 #변전원_All_Together_Day
#정보_공유 #사례_발표 #쌓이는_업무_지식

강릉지사



수확하는 계절, 가을! 우리 지사는 지난 5월 사육 내 소통팜(Farm)에 재배한 상추, 오이 등을 드디어 수확했다. 열심히 재배한 농산물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식을 준비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부서도 선정했는데, 전력공급부가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다. 함께 땀 흘리고 맛있는 식사를 같이하니 더욱 친해진 기분이다.

#강릉지사 #특식_한상 #소통팜 #수확하는_계절
#친하게_지내요 #가을 #싱싱한_채소 #열매를_맺다

서울본부



우리 본부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소통과 화합에 대한 특강을 시행했다. 세대 간, 직급 간 올바른 대화법을 배우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획했다. 중간중간 퀴즈를 풀고 선물도 받는 시간이 있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상처가 되기도 하니 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서울본부 #전력관리처 #소통과_화합 #노사관계
#올바른_대화법 #건전한_조직문화

원고 사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o.co.kr
문의 061-345-3128

KEPCO NEWS

2024. 10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성공적 상업운전 개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사 설립된 바라카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UAE 바라카원전 4호기가 9월 5일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UAE원전 4호기는 지난 32023년 11월 원자력규제기관(FANR)으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하여 동년 12월 연료장전을 완료하고 약 8개월간의 시운전 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UAE원전 1,2,3호기는 현재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 중에 있으며, 1~3호기에 이어 금번 4호기도 상업운전에 착수함으로써 4개 호기가 매년 상업운전을 개시하며 재차 한국의 시공 능력과 UAE의 사업관리, 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UAE원전은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서 2009년 사업수주 이후 건설기간 동안 주계약자인 한전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Team Korea를 구성하여 국내 원자력업계 역량을 결집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함께 매진했다.

아랍지역 최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한 UAE원전은 4개 호기 상업운전으로 연간 40TWh의 청정전기를 생산하며 UAE 전력수요의 최대 25%를 책임질 예정이다.

한-UAE 양국 간 관계는 UAE원전 사업을 계기로 최고 수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전방위 교류협력 확대에 이바지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새로운 100년 동반자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978MW 규모 계통안정화용 ESS 준공

한전은 9월 26일 밀양시 154kV 부북변전소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약 8,300억 원을 투입하여 전력변환장치(PCS) 978MW, 배터리 889MWh 등 설비를 구축했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14개 회사가 참여했다. 준공식에는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안병구 밀양시장 등 정부, 지자체 및 민간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계통안정화용 ESS는 전력망 건설 지연에 따른 발전제약을 완화(최대 1GW)시키고, 향후 전력망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파수 조정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ESS 건설사업은 공청회 및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였고 경상남도, 밀양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또한, 한전이 보유한 기존 변전소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전력설비 건설 관련 민원도 최소화하여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에너지 혁신생태계를 이끌어 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 선포

한전은 9월 23일 본사 비전홀에서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융복합단지 운영위원들과 기관 및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하는 융복합단지 운영위에서는 향후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발전전략 등을 공동 심의·의결하고, 대정부 대응 등 대외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광주전남 융복합단지에서 에너지 분야의 첫 번째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전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는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중심 자산 포트폴리오 대전환을 위한

'해외자산 매각 투자설명회' 개최

한전은 9월 2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가속화를 위해 '해외자산 매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발전소O&M사, 민자발전사, 도시가스사업자 등 국내 에너지 관련 업계와 M&A 자문사 등 총 50여 개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2022년부터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등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 M&A 시장 침체 등으로 자산 매각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자산 매각을 위해 이번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필리핀, 요르단의 4개 발전 자산 매각을 통해 최소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여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그린수소, 재생·E 등 신성장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해외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전환하고자 한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한전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2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98개 팀의 품질분임조가 본선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은 안전품질, 빅데이터·AI 등의 분야에 모두 4개 분임조가 참가하여 '전력구 소방공정 위험요인 개선으로 위험도 감소' 등의 개선과제로 대통령상 금상 3팀, 은상 1팀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미국 번스앤맥도널드와

미국 초고압 전력망 건설사업 공동 추진

한전은 9월 9일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미국 전력 및 송배전분야 시공 1위 기업인 번스앤맥도널드(Burns & McDonnell)과 미국 765kV 송전망 건설사업 및 연계 신사업 공동추진 등을 위한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은 지난 6월 양사 간 CTO 면담 시 번스앤맥도널드의 765kV 공동 사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번스앤맥

도널의 풍부한 시공 경험과 한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1970년대 이후 축소되었다가 재개되는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양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양사는 T/F팀을 구성하여 미국에서 신규 발주 예정인 765kV 송전망 건설사업의 제안서 작성과 계약 협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한전은 변전예방진단시스템 및 지중케이블 고장점 탐지 기술 등 자체 보유한 전력분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 세계원자력협회(WNA) 심포지엄

참석을 계기로 제2원전 세일즈 총력

김동철 사장은 9월 5~6일 영국 런던에서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 모멘텀' 주제로 열린 '2024년 세계원자력협회(WNA)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심포지엄 기조연설은 세계원자력협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ENEC CEO 및 WNA 의장인 무하마드 알 하마디 등 전 세계 원자력계 주요 인사 약 800명이 참석했다.

김동철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현시점에, 예산과 공정을 준수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며, 한전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하여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신뢰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을 포함한 RE100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전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인 CFE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김동철 사장은 심포지엄 참석을 계기로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 등 英정부, 의회 및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영국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추진 시 영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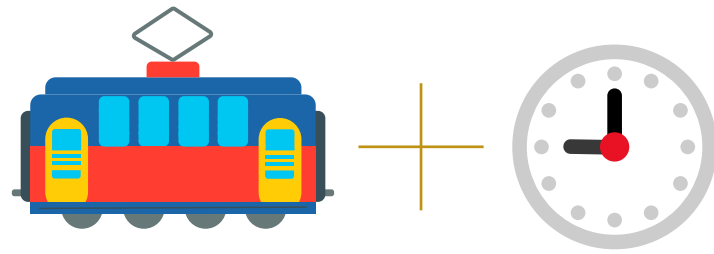
한전이 영국 원전시장 진출 시 1950년대에 최초로 상용원전을 운영한 원전 종주국인 영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한전은 철저한 사업 리스크 분석 및 수익성 확인 후 영국 원전 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01 이모지 댄스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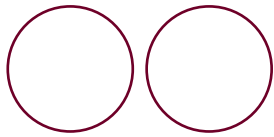
🗑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int. 8~13쪽 'ESSENTIAL KEPCO'

직장인들이라면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로 OO한다!



정답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김*후(4684)	김*훈(3920)	주*균(5828)	김*형(5333)	정*유(8073)
천*영(3230)	유*준(4468)	박*숙(0181)	김*교(7939)	임*호(6706)
임*우(1878)	김*면(2023)	전*환(2733)	황*만(6059)	김*현(8819)
박*호(6389)	배*늘(7776)	최*진(3557)	최*택(3750)	박*경(0156)
황*룡(3650)	윤*호(9210)	이*영(2853)	이*욱(6529)	하*선(1458)
김*진(7822)	성*정(6078)	김*원(4252)	김*현(6665)	추*창(4765)

03 지난호 정답



뮤 지 컬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앞자리에 한국전력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